

# 大學教育과 社會教育과의 關聯性 探索

—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을 中心으로—

金 水 日

(延世大 文理大 敎職敎育)

## I. 머리말

高等教育의 水準에 해당되는 社會敎育을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겠으나 大學敎育과 관련지어 볼 때에 準形式敎育의 측면에서 그 關聯性을 탐색하여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準形式敎育은 무엇인가? 準形式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機關은 어느 것인가? 그리고 高等教育이 目的하는 바는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범위에 맞추어 조망하는 制限된 答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아울러 現實적으로 그 可能性이 있는가를 診斷하고 그 결과에 따라 處方하고자 한다.

첫째, 準形式敎育(semi-formal education)은 形式敎育(formal education)과 非形式敎育(non-formal education)의 中間位置에 있음을 前提한다. 主要學習의 상황에는 晝間全日制出席授業과 그 이외의 방법 즉 夜間, 週末, 혹은 季節別로 운영되는 定時制와 그리고 遠隔敎育(distance-education)이 포함된다. 또한 學位 및 學點追求 課程(degree-and/or credit-seeking courses)과 特別課程을 學校學生과 學校外 學生(on-

and off-campus students)에게 개설·운영하고 있는 일부의 高等教育機關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一般大學에 입학할 條件과는 차이 있는 점이 있어야 되며, 그 이후에도 現職勤務와 學業繼續이라는 特性을 대부분의 在學生은 갖고 있다.

둘째, 高等教育水準에서 準形式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機關은 韓國放送通信大學과 6개의 開放大學이다.

그 이유는 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은 일정한 學校敎育을 마쳤거나 중단한 者로서 學術 또는 專門의 知識·技術의 研究와 鍊磨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大學 또는 專門大學敎育의 機會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社會발전에 기여할 人材를 양성함을 目的<sup>1)</sup> 하기 때문이다.

또한 入學 條件에는 大學入學學力考査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下位水準의 學校敎育을 마쳤거나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sup>2)</sup>와 그리고 產業體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sup>3)</sup>로서 이는 넓은 폭에 부분적인 제한점이 있다.

셋째, 高等教育의 目的은 고등교육기관을 大學,

1) 敎育법 128조 6 참조.

2) 敎育법 128조 8 참조.

3) 개발대학 설치운영 규정 7조 참조.

教育大學 및 師範大學, 그리고 專門大學, 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으로 나누어 볼 때<sup>4)</sup> 大學이나 專門大學의 目的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大學은 그 목적하는 바가 國家와 人類社會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的人格을 陶冶하는 것<sup>5)</sup>이며, 專門大學은 社會 각 분야에 관한 專門인 知識과 理論을 教授·研究하고 才能을 研磨하여 國家社會의 發展에 필요한 中堅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sup>6)</sup>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中堅職業人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專門大學教育和 指導的人格의 陶冶를 目的하는 大學教育에 비추어 볼 때에 “國家와 社會發展에 기여할 人材의 養成”을 目的하는 放送通信大學 및 開放大學教育에는 매우 폭 넓은 教育的 活動이 기대되며 상호 관련을 맺을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위에서 진술한 準形式教育, 준형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機關, 그리고 高等教育 目的의 진술은 平生大學教育和 大衆高等教育의 可能性을 탐색하려는 데 있다.

만일 高等教育의 목적에 관한 차이 있는 해석이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는 教科偏重의 學問中心, 社會經濟의 要求에 충족되는 役割中心, 各계각층의 多樣한 集團으로 구성된 그들 각자의 個性을 尊重하는 學生中心, 그리고 그 大學이 위치하고 있는 地域社會中心으로 크게 나눌 수<sup>7)</sup> 있겠다.

學問中心의 대학을 傳統인 大學이라 한다면 이는 확실히 소수정예화된, 즉 선별된 學習者만을 지도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傳統인 大學에 대하여 끊임 없는 도전으로 나타나는 것이 役割中心의 大學이다. 즉 이는 새로운 技術適用과 教育 이후의 社會의 直投入을 위하여

役割中心으로 改編되어야 하며, 結果적으로 고용 준비를 위한 대학의 役割과 政治·文化·社會生活에 수행될 역할을 질러 주어야 한다.

學生中心의 대학이란 주로 開發途上國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技術을 습득한 才단을 昇進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社員이나, 또는 계속학습의 소홀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 두려움에 놓여 있는 成人을 대상으로 교수할 경우 經驗後期高等教育(post-experience higher education)으로서 여러 種類의 내용영역이나 다양한 수준이어야 된다.

끝으로 地域社會中心 대학은 實際問題에 부딪치고 해결할 수 있는 準備과정에 놓여질 것을 前提한다. 즉 地域社會中心의 大學이라는 것은 發展과 成長에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豫見되어야 하겠고 반드시 地域社會의 活動에 대학 스스로가 참여하는 部分的인 教授方法이 채택되어야 하며, 教授와 教授便宜提供者와 共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開發되고 실제로 運營되어야 하며, 그리고 民主的인 思考過程의 움직임이 활발<sup>8)</sup>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大學을 一定期間의 經驗後期高等教育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 폭은 매우 넓게 擴散될 것이다. 왜냐하면 大衆 상층의 平生高等教育機關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大學自體는 學位 및 非學位과정 이 동시에 개설되어야 하겠고 定規學生과 學校外 定時制 學生을 동시에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에서 地域社會로, 地域社會에서 大學으로 왕래하는 相互交流되는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하게 進行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教授·學習의 進行 또한 매우 폭 넓고 다양한 水準의 것<sup>9)</sup>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大學이 위와 같이 發展되어 간다면 일부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치스러운 高等教

4) 교육법 81조 참조.

5) 교육법 108조 참조.

6) 교육법 128조의 2 참조.

7) Williams, G., *Towards lifelong education: a New role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aris; Unesco Press., 1977, pp. 143~145 참조.

8) Harris, W.J.A., *Comparative adult education*, London: Longman, 1980, pp. 131~138.

9) Knapper, C.K., & Cropley, A.,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London Croom Helm, 1985, pp. 42~53 참조.

育機關"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資源이 소요되는 學校學生보다 準形式體制의 成人高等教育기관이 經濟的이라는 一部の 주장<sup>10)</sup>도 있다.

이러한 趣旨에서 우리나라 一般大學의 現況은 正規授業에 學校外 學生을 受容하지 못하는 現狀에서 무엇보다 韓國放送通信大學의 現況과 開放大學의 實際 그리고 主要外國의 開放學習體制를 概略적으로 찾아보겠다.

## II. 韓國放送通信大學의 現況

1972년 3월 9일에 初級大學과정으로 설립된 서울大學校 附設 韓國放送通信大學은 우리나라 최초의 平生教育機關으로서의 勳을 卓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1981년 2월 28일에 5년제 學士과정이 설치되었으며 1982년 2월 15일에 獨立된 大學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36,835명의 졸업生을 배출하였고, 14개 학과에 34,000명의 入學定員을 가진 명실상부한 정규 학사과정 國立大學이다.<sup>11)</sup>

이 대학의 特수성에 關於하여 靑순찬 學長은 學業 적응과 대학 지원에 關於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의 勉학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본 대학의 독특한 教育체 계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사소한 의문점은 스스로 그 해답을 구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학업이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 생활연구소를 통한 상담활동, 지역학습관, 상 임지도 교수들 통한 지도, 대학신문 등을 통한 끊임 없는 정보교환 등 제도적인 측면의 도움은 물론 학장 이하 본 대학의 전 교직원은 여러분의 학문적 수련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발벗고 나설 것을 약속드리는 바 입니다.…… 일반 대학생들과는 달리 직장인이

자, 가정인으로서……일상적인 업무에 쫓기는 틈에 공부해야 할 처지의 정신적·신체적 피 로감, 주로 방송과 통신에 의존하는 본 대학 教育방법의 特수성에 대한 적응 곤란, 의문 나 는 사항에 對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면전에 있지 않음으로서 느끼 는 고독감과 좌절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긴 학습 걸손을 쉽사리 보충하기 어려운 시간적·공간적 제약성 등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다 는 것을……”<sup>12)</sup>

위에 關한 內容은 放送通信大學의 特性和 教授·學習支援體制와 그리고 一般學生들의 보편 적인 事項과는 전혀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放送通信大學의 組織과 그 人的構成, 放送通信大學生의 特特殊性, 그리고 그들의 修學過程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 1. 放送通信大學의 組織

放送通信大學에는 學長을 중심으로 運營委員會와 協力學校 그리고 敎務委員會와 敎授會議가 있으며, 敎務處와 學生處 그리고 庶務課가 行政部署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정부서는 총 29인의 職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인의 敎授職 이외에는 모두 一般職과 技士 2人(表 1 참조)이다.

한편 學科別 敎授는 13개 학과와 學科別 敎養 敎科를 총괄하는 敎養學科가 있다. 또한 學科別

<표 1> 행정부서별 인원 현황

		교무처	학생처	서무과
교수	처장	1	1	—
	부처장	1	1	—
행정	서기관	—	—	1
	사무관(연구관)	2	2	2
지원	주사	6	5	5
	기사	—	—	2
계		10	9	10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대학생활안내, 1985, p. 4.

10) Ahmed, M., *The economics of nonformal education*, New York; Praeger Pub., 1975, pp. 11~16 참조.

11)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대학생활안내, 1985, p. 1 참조.

12) 권순찬, 권두에 부쳐서, 1985 대학생활안내, 서울: 방송통신대학, 1985, pp. iii~iv.

平均 1~2人的 助教를 감안하여 89명의 教授가 있으며 英語科 이외의 語文系列이 다른 系列보다 적은 수이다. 즉 佛語科는 教授 1인이, 國語科와 中國語科는 2인이다.<sup>13)</sup>

그리고 부속된 施設과 機關은 研究所와 圖書館 및 電子計算所, 地域學習館, 그리고 學報社와 出版部가 있다.

특히 大學本部에는 地域學習館 이외의 附屬施設과 機關이 위치하고 있으며 21명의 교수가 그 運營을 주관하고 있다.<sup>14)</sup> 또한 地域學習館은 江原, 忠北, 忠南, 大邱·慶北, 釜山, 慶南, 全南, 全北, 濟州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教授와 助教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단 研究教授制度가 大學本부의 放送通信教育研究所와 慶南地域學習館에 각각 5인과 1인이 있다.

그리고 協力學校는 地域別·學科別 特殊性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放學中에 出席授業을 맡아 실시하고 있는데 學生들로서는 공식적인 對面學習의 機會를 갖는다.

全體學生數 153,215명에 대하여 48개 學校에서 有關學科別 直接指導를 실시하고 있으며, 11개 市道에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國立大學校 중심으로 協力授業의 比重을 높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初等教育은 教育大學에서 그리고 幼兒教育은 專門大學에서 맡아 실시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48개 協力學校의 支援를 받지만 電子計算學科는 10개 학교에서, 그리고 幼兒教育, 初等教育, 中國語는 11개 학교에서, 農學科는 13

개 학교에서 協力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學科는 적게는 19개 학교에서 그리고 많게는 24개 학교에서 協力授業을 받고 있다.

한편 濟州道만은 電子計算學科 學生을 위한 協力授業을 받고 있는지는 찾지 못하였다. 이는 既存大學에 學科가 없으면 協力授業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提起한다. 즉 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중에서 放送通信大學의 학과가 開設되어 있음을 뜻한다.

## 2. 放送通信大學 學生의 特性

放送通信大學의 學生에 관하여 年齡, 職業 그리고 卒業比率로 나누어 그 特性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첫째 年齡別 學生의 分布는 20세 이하에서부터 45세 이상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 學年別·年齡階層別로 나누어 분석하여 볼 때에 1학년 學生 中에는 21~26세의 집단이 41,368명 중 19,856명으로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5학년의 경우는 22,668명 중에서 27~32세까지의 年齡階層에 해당되는 學生의 數가 8,453명으로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4학년의 경우도 21~26세와 27~32세의 두 年齡集團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年齡階層別·學年別 學生의 分布狀況은 正規高等學校를 졸업한 이후 1학년으로 入學하는 경우와 그리고 專門大學을 마친 이후 바로 編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의미하고

〈표 2〉 연령별·학년별 학생분포

(전체 : 153, 215명)

학 년	연 령 계	연령					
		~20	21~26	27~32	33~38	39~44	45~
1	41,368	4,976	19,856	10,907	3,314	1,319	996
2	32,004	364	14,290	11,473	3,919	1,285	673
3	35,267	101	12,559	13,715	4,874	2,691	1,327
4	21,908	4	5,285	8,306	3,907	2,761	1,645
5	22,668	1	3,879	8,453	4,769	3,484	2,082

자료 : 문교부(편), 1985 문교통계연보, 1985, p. 709.

13) 원자료, pp. 6~9.

14) 원자료, pp. 5~6, 9 참조.

15) 원자료, pp. 162~167 참조.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대학편람, 1985, p. 28 참조.  
문교부(편), 1985 문교통계, 1985, pp. 706~709 참조.

있다. 특히 社會的 經驗을 쌓은 이후에 入學과 編入學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職業別·學年別 학생들의 現況은 1~2학년의 경우 會社員, 公務員, 銀行員과 敎員이, 그리고 3~5학년의 경우는 敎員, 銀行員 및 公務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3참조).

그러나 看護員, 工業, 農業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學年別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軍人은 中間 年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뚜렷하게 분류되지 않는 職種에 해당되는 층과 無職인 학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은 우리나라 放送通信大學이 求職을 위한 準備過程으로 一般大學과 비슷한 特性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敎員의 경우 옛날 師範學校 출신의 現職敎師와 그리고 2年制 教育大學 출신의 國民學校敎師가 각각 新入生과 그리고 編入生으로 재학하고

있다.

세째,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卒業生의 比率은 전체적으로 약 26%인  $\frac{1}{4}$ 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學士과정의 경우이며 專門大學 과정은 약 32%가 卒業하고 있다(表 4 참조).

이는 放送通信大學이 당면하고 있는 世界的 共通事實로서 앞으로의 自律學習의 習慣化가 初·中等教育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電波媒體와 印刷媒體, 그리고 극히 制限된 部分의 對面學習이 갖는 어려운 점이라 하겠다.

學科別 卒業比率은 初等教育이 가장 높고, 幼兒教育이 매우 낮으며, 家政學, 經營學, 그리고 農學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行政學科의 경우는 전체 학생의 卒業比率과 비슷한 것이다.

### 3. 放送通信大學의 教育體制

이는 學生의 입장에서 볼 때에 入學에서 卒業할 때까지의 과정, 大學의 측면에서 教育方法, 그리고 大學과 學生의 두 측면에서 成績評價 및 學點取得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개괄적으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士課程 學生의 입장에서 보면,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은 入學, 入學指針書 수령, 그리고 自學自習과 放送講義청취, 協力學校에의 出席授業, 140학점 취득, 그리고 卒業이다.

自學自習과 放送講義는 放送講義 청취, 課題物 제출, 書面 및 口頭質疑가 포함된다. 協力學校에서 出席授業은 一部試驗에의 受驗과, 講義·實驗實習의 수강 및 참여, 課題物 제출 그리고 2部試驗에의 受驗이다.

다음은 140학점 取得인데 5년 이상 10년 이내

〈표 3〉 직업별·학년별 학생 분포

직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계	41,368	32,004	35,267	21,908	22,668
공무원	8,725	6,888	6,630	3,942	3,956
교원	1,973	4,696	8,574	8,205	8,548
회사원	14,733	8,333	7,579	3,574	3,357
은행원	2,706	1,344	993	543	492
간호원	311	583	708	345	267
군인	1,731	1,930	2,809	1,371	1,442
상업	1,688	995	963	448	373
농업	1,015	448	547	289	264
공업	558	365	303	119	127
기타	3,239	2,492	2,539	1,539	2,501
무직	4,689	3,930	3,622	1,494	1,305

자료: 문교부(전), 1985 문교통계연보, 1985, p. 710.

〈표 4〉 학과별 졸업 상황(1974~1985)

	입학(학사과정)	졸업(학사과정)	비율(%)
계	115,419(30,609)	36,835(7,971)	31.9(26.0)
가정학과	17,623(4,877)	3,984(833)	22.6(17.1)
경영학과	27,470(8,766)	9,151(1,515)	22.4(17.3)
농학과	17,156(4,028)	3,505(836)	20.4(20.8)
초등교육과	23,082(4,927)	14,148(2,392)	61.3(48.5)
행정학과	27,781(8,011)	8,647(2,395)	31.1(29.9)
유아교육과	2,307(—)	400(—)	17.3(—)

자료: 문교부(전), 1985 문교통계연보, 1985, p. 711.

〈표 5〉 과제물 처리 현황

연 도	1 학 기		2 학 기		계		비 고		
	등록인원	접수처리수	등록인원	접수처리수	등록인원	접수처리수	1학기	2학기	제출률
1981	40,474	57,157	27,382	81,071	67,856	138,228	1학기 2학기	2회 5회	제출률
1982	71,430	249,019	51,681	107,223	123,111	356,242	1학기 2학기	5회 3회	〃
1983	83,591	126,316	65,153	97,910	148,744	224,226	1학기 2학기	2회 2회	〃
1984	97,037	193,249	94,665	156,496	191,702	349,745	1학기 2학기	3회 2회	〃
1985	148,304	249,094	118,643	189,828	266,947	438,922	1학기 2학기	2회 2회	〃

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미출판 유인물)

의 기간에 한정되며 成績優秀學生은 4년 내지 4년 半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卒業試驗에 합격되어야만 學士學位를 받게 된다.

둘째, 大學의 측면에서 教育方法의 주요 부분은 放送通信大學에서 KBS에 放送講義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는 16개의 地方中繼所를 통한 KBS FM 라디오와 KBS 3TV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放送通信大學의 出版部와 學報社에서 각각 副教材 및 카세트 제공과, 學報에 의한 紙上講義를 직접 실시한다. 또한 專任教授 및 行政職員이 파견되어 있는 市·郡地域學習館에 學事業務의 편의 제공과 地域學友會 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 教育媒體開發研究所에서 地域學習館에 V-TR 학습자료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한편 地域別 協力學校에 교수 및 강의실 제공을 요청하고 出席授業을 의뢰하게 된다. 이와 같이 放送通信大學 中心의 教育方法은 學習者의 편에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하여 放送講義를 청취하고, 協力學校에 出席하여 학습하고 評價에 응하며, 市·郡지역 학습관에서 녹음강의 테이프 및 도서실을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大學本部 學事擔當 교수에게 課題物을 제출하고 이의 첨삭 지도를 받는다.

특히 放送通信大學의 課題物 處理는 대단히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표 5〉와 같다.

이를 보면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의 課題物 處理件數는 각각 138,228; 356,242; 224,226; 349,745 그리고 438,922이다. '84년도

의 경우 과제물 처리를 위한 행정적 정리와 교수 지도에 참여한 연 인원은 각각 570명과 645명이었으며 교수지도 요원은 大學內에서 254명, 外部에서 391명이 관제하였다(표5의 자료에 의하였음).

셋째, 성적 평가 및 학점 취득은 大學에서는 時間帶에 알맞는 教授活動이 있어야 되겠고 評價의 基準에 容觀性이 明示되어야 하겠으며 學事內規에 관한 엄격한 管理施行이 뒤따라야 되겠다.

한편 學生의 편에서는 출석수업과목인 방송강의와, 출석수업에서는 출석과 2부시험을 치러야 되겠고, 出席授業이 면제된 방송강의 과제물은 과제물 첨삭지도를 반드시 大學本部로부터 받아야 하며, 출석수업과 과제물이 면제된 방송강의는 인정학점에 따른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들은 각각 30점이며, 세 과정 모두 객관식 1부시험을 거쳐야 인정되고 이는 70점을 차지한다.<sup>16)</sup>

그러나 과목별 출석수업은  $\frac{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과목의 인정은 D-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Ⅲ. 開放大學의 實際

우리나라에 開放大學을 설치하기 위한 基本趣旨는 專門大學 卒業者에게 계속학습의 길을 열어주고, 實業高等學校 卒業者로서 대학 2년 이상을 修學한 者에게 中斷되지 않은 學習支援의 體制가 있음을 밝혀 주며, 나아가서는 大學 2년을 수료한 者로서 專門大學 特別課程에서 所定의 學

16) 앞자료(대학생활 안내), pp. 215~121 참조.

點을 취득하였거나 産業現場 經驗이 있는 者에게 學士學位課程에 就學의 可能性을 提示<sup>17)</sup>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제시된 趣旨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專門大學 水準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學士學位取得의 機會를 제공하고자 하는 上位水準의 2年制 大學(Senior College) 즉 3·4학년만의 大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開放大學 설립을 위한 推進과정의 協議에서 開放産業大學과 開放專門大學의 두 과정을 한 캠퍼스에 두되, 前者인 경우 學士學位課程을 明示하고 있었으며, 入學의 條件은 同一系 專門大學 졸업자 또는 高等學校 졸업자로서 一般大學 課程 2년을 修了하고 1년 이상 職場勤務 經驗이 있거나 現場勤務者이어야 됨을 규정하고 있었다.<sup>18)</sup>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開放大學에는 高等學校 졸업자 또는 同等 이상의 學力所持者로서 産業體 勤務經歷 1년 이상인 者에게 新入生으로, 그리고 專門大學 졸업자 또는 同等 이상의 學力所持者에게 3학년 編入生으로 就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sup>19)</sup> 이는 基本的으로 正規大學에 修學의 기회를 놓친 者에게 그리고 專門大學 졸업자에게 繼續修學의 길을 열어 놓은 特殊大學이지 開放大學은 아니다.

왜냐하면 開放大學은 누구나 언제든지 배우고자 할 때에 취학할 수 있는 大學이어야 함이 一般의 事實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産業界 勤勞者에게 高等教育 및 繼續教育機會를 부여하고 産業社會의 급속한 變化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知識·技術習得機會를 제공하며 産業構造의 변화에 따른 技術人力 양성을 設置目的<sup>20)</sup>으로 설정한 이상 순수 開放으로 方向轉換을 시도하여야 되겠다.

이와 같은 方向轉換을 위하여 設置現況, 教授·學習形態, 履修學點의 承認, 基本方向 그리고 開放大學의 發展方向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 1. 開放大學 設置現況

우리나라의 開放大學은 專門大學에서 발전·형성되었다. 특히 國立과 私立이 각각 3개 대학 함께 6개의 開放大學이 있으며 모집경쟁률은 1학년 新入生과정 2.0이며, 3학년의 編入學生 과정은 2.4이다(표 6 참조).

한편 1985학년도 在籍生의 수는 6개 開放大學에 24,719명이다. 그리고 교원수는 577명이며 그 確保率은 90.7%이다(표 6 참조). 특히 확보된 教員은 開放大學 特有的 教授活動에 參與經驗이 있는지 혹은 産業體의 現場指導가 가능한 분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표 6〉 개방대학 현황

지 역	계 열	개방대학명	설립별	개교년도	교 인 수 (확보율%)	모집인원(경쟁률)		제 적 학 생 수			
						신 입 생	편 입 생	'82	'83	'84	'85
서 울	공 업	경기공업	국 립	1982	155(91.7)	954(3.2)	1,067(3.9)	2,074	9,719	8,030	8,901
부 산	공 업	부 산	국 립	1984	121(93.1)	957(1.5)	965(2.0)	—	—	1,716	3,877
대 전	공 업	대 전	국 립	1984	104(99.0)	868(1.6)	1,177(1.8)	—	—	1,464	4,070
광 주	경 상	광 주	사 립	1984	87(78.4)	1,021(1.7)	1,168(1.8)	—	—	1,798	4,639
대 구	공 업	경 북	사 립	1985	62(93.9)	1,040(2.3)	1,080(3.4)	—	—	—	2,188
군 산	공 업	군 산	사 립	1985	48(87.2)	464(2.0)	567(1.7)	—	—	—	1,040
계					577(90.7)	5,509(2.0)	6,024(2.4)	2,074	9,719	13,008	24,719

자료: 문교부 사회적업교육국, 개방대학운영현황보고, 1985(미출판유인물) p.1,4.

연도별 학생현황(제적학생수), 일차미상.

17) 文敎部, 開放大學設置計劃(案), 1981.5(未出版油引物), 開放大學 形態에서 入學資格 參照.

18) 文敎部, 開放大學設置計劃案, 1981.9(未出版油引物), 入學資格 參照.

19) 文敎部 社會職業教育局, 開放大學運營現況報告, 1985(未出版油引物), p.2.

20) 文敎部 社會職業教育局, 앞자료 1985 p.1

찾지 못하였다.

## 2. 開放學習體制을 위한 教授·學習形態

學點基準의 學年區分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학년별 取得學點의 上·下限線과 동일하며, 1·2학기과 季節學期로 구분하고 있으나, 冬·夏季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晝間全日制, 夜間定時制 그리고 放學中 季節制로 出席授業을 구분하고 있으며, 放送·通信·產業體·研究機關 등을 활용한 授業의 可能性을 제시하고 있다.<sup>21)</sup>

이와 같은 사실은 晝間定時제도 포함되어야 하며 夜間正規課程이 활발하여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週末課程의 學習機會 제공이 당연한 일로 直視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開放大學 學習은 現場에서의 經驗學習과 自律自學의 지속적인 學習이 요구되므로 '캠퍼스 밖의 教育機會 擴大'<sup>22)</sup>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人文·社會課程은 韓國放送通信大學의 放送講義에 상당 부분을 위촉<sup>23)</sup>하여야 되는가 하면, 基礎課程·補修課程 등은 自律學習모듈(self-learning module)을 개발·보급하여야 되겠다.

특히 綜合情報체제가 開放大學內에 설치되어 學習者中心의 이용 폭을 넓혀 줌으로써 學習效果의 極大化를 기대하겠고 現場研修의 機會가 계속되어야만 살아 움직이는 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履修學點의 社會的 承認

현재 開放大學은 取得學點別 卒業資格認定의 측면에서 볼 때 專門大學과 大學의 役割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專門大學을 開放大學으로 格上시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왜냐하면 學士學位에의 前提가 卒業綜合試驗을 거쳐 합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되는 규정과 아울러 8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專門大學 卒業學力의 認定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新入生の 경우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험자만을 선발대상으로, 修學期間中에는 自律學習學點이 부과되며, 產業體 人士를 초빙교수로 모시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개방대학에서는 學位取得과정과 學點追求과정으로 兩分될 수 있으나 現職 및 職前研修의 役割을 開放大學 正規 및 特別課程에 포함하도록 유도하려는 내용이 反映되어야 한다.

이는 學校教育 이후의 일정기간 社會的 經驗의 기초에서 開放學習體制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唯一의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기관이다. 그러므로 開放大學에서 이수한 課程이나 취득한 약간의 學點이 就業, 轉職, 昇進에 직접 反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專門大學 卒業學力의 인정과 學士學位授與와 아울러 非學位課程과 非學點追求의 內容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4. 開放大學의 基本方向

우리나라에서 開放大學을 처음 設置하던 1981년의 당시를 회고하여 볼 때에 오늘의 현실은 그때와 너무나 차이 있다.

開放大學의 現實을 고려할 때에 그 基本方向은 첫째, 職業技術教育을 위주로 하는 特色 있는 專門教育機關으로 하여야 되겠으며 둘째, 이상적으로는 教育對象을 광범하게 확대하여야 하겠고, 學事運營을 融通性 있게 하여야 되겠다.<sup>24)</sup>

이는 開放大學 본래의 目的에 충실할 뒤따르는 것으로서, 各계各층의 異質的 對象에서 다양한 教授·學習의 형태 즉 出席, 放送通信, 自律, 그리고 現場學習을 통하여 實質的인 課程의 개설이 요구된다.

## 5. 開放大學 方向의 定立

우리나라 開放大學의 實際를 살펴본 결과 開放大學 고유의 機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非開放性 開放大學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첫째, 완전한 開放學習體制下的 개방대학이라

21) 문교부 사회적업교육국, 개방대학운영현황보고, 1985(미출판유인물), p.2~3 참조.

22) 문교부 사회적업교육국, 제2차 개방대학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982, 7(미출판유인물), pp.7~9 참조.

23) 문교부, 산업교육국, 개방대학 설치계획안, 1981, 9(미출판유인물), p.5 참조.

24) 문교부 산업교육국, 개방대학 설치계획(안), 1981, 5(미출판유인물), p.2.



던 放送通信大學과의 關係를 분명히 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放送通信大學에서의 開設講義 내용의 일부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工業·實業系列의 교육에 있어 特殊性이 있다면 現場研修의 일부를 學點認定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된다. 그리고 産·學連繫의 과정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특히 入學과 編入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隨時修學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非學位課程과 學位課程의 비율에서 前者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되겠고, 課程別 水準의 차이를 있는 教材가 自律學習이 가능한 方向으로 모듈화(Module)되어야 한다.

둘째, 非開放性 開放大學이라는 特殊性이 만일 있다면 이는 확실히 하여야 한다. 즉 實業系 高等學校와 專門大學 졸업생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現存 專門大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그 發展과 成長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이어야 하겠다.

즉, 일정기간 現職經驗을 쌓은 者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産業體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의 자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經商系와 工業系의 開放大學만이 아니라 기존 開放大學에 專門大學의 모든 課程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看護系列의 개방대학과 水·海洋系의 개방대학은 修學年限의 조정이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放送通信大學의 開設學科와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그렇지 못할 경우 協同授業의 體制가 구안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一般大學의 中途脫落者에게 있어서도 産業體勤務經驗을 前提로 계열에 따라 혹은 다른 계열일 경우 先修敎科의 제시가 必須의이라 하겠다.

세계, 기존 開放大學의 使命感이 문제로 나타

난다. 개방대학이 專門大學을 4년제 대학으로 格上시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았을 때에 敎授·學習體制가 상당히 경직되어 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入學이나 編入學의 前提條件이 一般大學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에 私立開放大學의 增設이 어렵다는 실정에 적면하게 될 것이고 특히 國庫支援이 요청될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인 狀況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에 개방된 開放大學으로 노력하여야 되겠다.

#### IV. 主要外國의 開放學習體制

여러 나라의 開放學習體制를 高等教育機關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새로이 독립된 新設大學이 있는가 하면, 既存大學에 附設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그리고 위 두 가지의 中間型이 있다. 한편 正規大學에 재학중인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學校外 學生이 중심이며 거의 모두가 入學前 일정기간의 社會的 經驗을 쌓았거나, 혹은 入學 이후에도 就業과 定時制修學이라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成績이나 學點이나 學位와는 관계없이 自己生活에 부닥치고 있는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成人中心의 平生繼續學習을 하고 있다. 한편 개괄적이지만 이를 소개한 자료<sup>25)</sup>는 2次的인 것에 한정하였다.

##### (1) 동부 독일

第2次 世界大戰 이후 形式敎育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大學豫備課程에 대한 要求가 있어, 1949년부터 그들을 위하여 25개의 大學을 신설하여 通信敎育을 실시하였다. 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특수한 職種에 따라 정식으로 承認을 받아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5) 金水日外, 世界主要國家의 開放大學 比較研究, 1981(未出版油引物).

Kaye, A. & R Rumble, G. (Eds.), *Distance teaching for higher and adult education*, London; Croom Helm, 1981.

Knapper, C. & Cropley, A.,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London; Croom Helm, 1985.

Williams, G., *Towards Lifelong education; A New role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e*, Paris: Unesco Press, 1977.

## (2) 서부 독일

서독의 경우는 有職勤勞者에게 學習休暇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계속학습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격려 지원함을 의미한다.

특히 Baukasten 제도는 高等教育의 모든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것이다. 이는 낭비성 학습이나 二重的인 學業에의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장소에서 정하여진 곳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Funk(Radio) Kolleg는 遠隔學習機關으로서 電波 및 印刷媒體를 통하여 個別學習體制가 매우 活潑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의 종합적인 특성을 띤 것으로서 綜合大學으로서 博士課程까지 開設하고 있는 것이 Fernuniversität 이다.

## (3) 미 국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高等教育의 機會를 확대하고자 구안된 開放學習體制는 學問的 無關心이나 불분명한 職業的 目的, 그리고 文書上의 學士學位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願하지 않는 學生”들로 채워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形式教育 이외의 學習資料室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地域社會가 곧 學校라는 “The Univ. without wall” 이라는 것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는 利用 가능한 學習經驗의 範圍에 다양하게 스며 가고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1972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내용이 一般化되었다.

첫째, 個別學習者의 興味와 要求에 맞도록 敎科科目이 편성되었으며,

둘째, 學校外 青少年과 成人을 위한 學位取得의 가능한 機會가 부여되었으며,

셋째, 形式教育과 地域社會發展과의 內容 측면에서 統合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 (4) 베네쥬엘라

Sartanejason 에 있는 Simon Bolivar 대학교에서 1973년 처음으로 初級大學 과정의 遠隔學習體制를 받아들여 실시하였다. 數學과 物理學에 한정하여 인쇄자료와, 定期的인 個別指導, 視聽覺資料를 이용하여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나 入學의

條件은 開放的이 못 된다. 즉 반드시 正規大學에 入學條件과 同一하여야 된다.

## (5) 불가리아

一定期間에 勞動한 經驗을 쌓은 勞動者와 소작인을 위한 순수 통신교육과정의 開放大學이 1973년에 設立되어 운영되고 있다. 集中的인 學習을 원할 경우 有給休暇를 주어 계속적인 學習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6) 소 련

소련에서는 3가지 종류의 開放學習 기관이 있는데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이를 소개하던 아래와 같다.

첫째, 通信·夜間과정으로서 1938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학과 예술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하고 있으며 各種試驗에 응시·합격하고자 하는 學校外 成人에게 1년간 계속 集中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教育 TV는 이 과정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人民大學으로서 知的·文化的 水準과 專門的 技術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大衆教育 위주의 自學自習기관이다. 특히 講義, 세미나, 實驗授業, 討議, 라디오, TV 등의 형식을 이용하며 科學者, 敎師, 中央委員, 發明家 등이 참여한다.

셋째, Zavod-vtuz로서 이는 高等科學技術教育機關에서 定時制로 운영하고 있다. 工場勞動者 중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勞動經驗이 學習의 일·부로 活用되기도 한다. 특히 年間 한 학기는 全日制學習을 하고, 나머지 學期는 夜間定時制學習을 한다.

## (7) 스웨덴

長·短期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開放大學은 25:5라는 開放學習機關이 있다. 이는 短期과정으로서 25歲 이상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일한 經驗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職業教育機關으로서 基本技術教育과 補完教育 혹은 轉業教育을 맡은 短期과정이다. 그리고 長期과정의 새로운 技術教育은 全日制 學位과정을 통하여 실시하는 成人教育기관이 있다.

## (8) 영 국

정규학교교육을 위한 學習機會를 놓친 者에게 學位取得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는 英國의 開放大

學은 傳統的인 大學과의 차이점이 있다.

모든 학생은 모두 成人이며, 이들은 定時制 職業을 하고 있다. 1학년 이외의 學生에게는 그들의 要求와 興味에 따라 과목의 選擇權이 주어진다.

講義 方法은 通信教材, 라디오, TV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이의 方法에서 볼 때에 遠隔教育기관이다. 원격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은 教材開發이다.

그러나 成人學生을 위하여 제공되는 教材內容은 매우 基礎的이다. 그러므로 參與와 資源面에서 開放大學과 一般大學과의 관계가 매우 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배제할 수 없다.

#### (9) 오스트레일리아

大學水準에 있어 遠隔教育기관으로서 TAFE College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定時制 成人學習者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通信教育기관이다. 특히 學位課程의 學校外 成人學習者는 정상적인 入學試驗에 합격되어야 하고, 정규학생을 지도하는 同一教授에게 배우고 試驗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諸般規定과 受容人員의 數가 제한되어 있어 비판받기도 한다.

#### (10) 이라크

평생 계속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開放大學은 Al-Mustansiriyah 大學이다. 佛語와 英語인 外國語 과정과, 自然科學, 經濟, 經營, 人文科學, 法學 등 다양한 教科가 개설되어 있다.

특히 수도 바그다드에 이 大學의 中央本部가 있으며 주야간 定時制가 실시된다. 그러나 地方에도 이 대학의 協同學習機能을 수행하는 센터가 있다.

#### (11) 인도

數億의 人口와 넓은 國土 위에 成人의 教育機會擴大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16년에 成人을 위한 學校外 學習機會를 맡은 곳은 정규대학이었으며, 正規學生과 똑같은 入學條件, 教科運營 그리고 評價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同水準의 成績 결과에 의한다 하여도 社會的 選別에 있어 高劣주는 差等을 두었다.

둘째, 通信學習機關이 여럿 있으며 이는 通信大學과 一般大學 教授陣에 의하여 學習資料가 개발·보급되고 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自律學習과 自己評價가 가능하도록 編制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학생 중 30~50% 정도가 個別指導에 참여하는 限界點이 있고 地域別 學習支援센터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셋째, 印度는 英國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17개의 農科大學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多樣的 媒體를 중심으로 遠隔教育體制가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다. 특히 Andhra Pradesh 大學에서는 學校外 延長프로그램을 활력 있게 수행하고 있어 農業發展에 이바지하고 있다.

#### (12) 일본

正規大學內에 부설된 通信과정과 독립된 放送大學이 日本에 있다. 大學附設通信과정에는 1950년대에는 초·중등학교 教師가 상당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技術·經濟分野의 專門職業人이 많다. 이는 특히 定時制 學位과정으로서 5년 동안 120학점을 취득하여야 되지만 여름學期에 반드시 出席授業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通信 과정은 高等學校 卒業者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지만 受講과 評價 그리고 出席授業 때문에 卒業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한편 1982년에 시작된 放送大學은 東京타워를 중심으로 可視聽地域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結果는 지켜보아야 되겠다. 그러나 教授學士라는 學位名稱이 제한되어 있고 系列別 授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 (13) 자이레

國立자이레大學에 平生教育센터가 설립된 이후 私企業과 公共技術의 開發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早期과정, 세미나, TV, 通信의 方法으로 教授·學習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學位 및 學點追求과정과 一般敎養과정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다.

#### (14) 중국

오늘날의 中共에 있어 약 80만 명의 通信大學 在學生이 있다는 추측이 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71년에 발간된 紅旗에 따르면 Shenyang의 어느 한 醫科大學에 學校外 學生을 위한 훈련과정 이 있는데 이는 세 단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 단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기초지식을 쌓고 大學病院에서 看護業務를 수행하며, 둘째 단계는 學校外 學生들의 고향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가장 평범한 치료방법에 숙달되고 있다. 셋째 단계는 위 두 단계를 成功的으로 마친 者들이 大學으로 돌아와서 2~3년 동안 定時制로 계속학습하여 最終的으로 단 몇 명만이 資格의 認定을 받는다는 것이다.

#### (15) 케냐

1964년 獨立國家로 출발할 당시부터 教育機會의 全般的 擴張을 위한 方案으로서 對面學習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政府는 이러한 教育界의 뜻을 받아들여 Nairobi 大學校에 成人教育센터를 만들고, 初等教育水準의 內容을 通信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 (16) 폴란드

第2次 世界大戰 이후인 1965년에 專門人力의 國家·社會的 必要에 의해, TV 나 일반 印刷資料를 통하여 理工系 開放大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대학에서 修學중인 學校外 學生은 전체의 약 72.6%가 시골 지역의 노동자 계층이며 주된 교과목은 物理, 化學, 數學, 電子工學, 材料工學 등이다.

#### (17) 프랑스

大學內에 通信과정인 개설되어 있으며 라디오와 通信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入學에 있어 標準化된 評價에 합격되어야 하며, 학생의 약 40%가 全日制 職場에 나가고 있으며, 25%는 定時制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夜間이나 週末에 出席授業을 받아야 되는 것이 특징이다.

#### (18) 헝가리

1973년에 技術·勞動者들이 高等教育을 받기 위하여 無試驗入學이 가능한 大學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Uesprem에 있는 化學工業大學이다.

이 大學의 入學은 無試驗으로 들어온 學校外 學生은 30세 미만이어야 되고 적어도 2년은 手工業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10개월 과정의 通信授業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후에 合格하여야만 앞서 제시된 化學工業大學에 정식으로 入學된다. 이 大學에 입학한 이후 엔지니어로서 두 종류가

있다. 약 3년 동안 통신과정으로 학습한 이후 일정한 檢定에 합격되면 Opcrative engineer 라는 자격을 수여하며, 本人이 희망할 경우 2년을 더 理論的인 訓練을 받으면 Qualified engineer 라는 一般大學 水準의 學位를 준다.

## V. 結 論

앞서 提示된 내용에 기초하여 一般大學과 韓國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 그리고 이들을 綜合하여 主要外國의 開放學習體制와 연관지어 볼 때에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겠다.

### 1. 一般大學

우리나라 高等教育機關의 안날을 바라 볼 때에 “더 이상 현재처럼 우뚝 솟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大衆平生大學을 理念化하여 經驗後期의 高等教育機關으로 탈바꿈하여야 될 것이다.

요사이처럼 급증하는 大學志望生이 계속 保障된다는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大學은 대학대로 學校外 學生을 수용하여 非學位課程의 講義를 계속하여야 되겠다. 또한 대학으로서의 使命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通信課程의 教科開發과 아울러 遠隔學習에의 걸침이 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一般學士와 學術學士의 學位區分이 뚜렷하여야 할 것이며 準學士의 體制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實務와 學問의 兩面性을 앞으로의 高等教育機關이 맡아야 하겠다.

한편 社會的 要求 또한 學位取得의 課程履修보다 필요한 부분의 學點取得을 원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高等教育機關은 未來社會의 要求를 찾아 받아들일 수 있는 準備과 아울러 個別學習者의 要求에 충족되도록 努力하여야 되겠고 특히 職業的 要求에 學問的인 것이 加味되어야만 하겠다.

위와 같은 一般大學의 안날에 관하여 개괄적인 것을 찾아보았으나 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에 대하여서도 그 發展方向을 보아야 하겠다.

## 2. 放送通信大學

우리나라 放送通信大學은 遠隔敎育을 맡고 있으며 약 130,000 명의 學生을 지도하고 있는 高等教育機關이다.

放送通信大學은 다른 大學에 쓸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첫째, KBS FM 라디오 放送과 KBS 3TV 放映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講義 내용을 全國民에게 弘報함으로써 在籍生 이외에도 들을 수 있는 機會를 넓혀야 하겠다. 그리고 開放大學의 人文敎養科目은 放送講義로 代替될 수 있는 方案의 모색이 要請된다.

둘째, 11개 市道에 開設되어 있는 協力學校中心의 學習센터가 制度化되어 放送通信大學生의 年中 指導를 委任하여야 하겠다. 그 이유는 地理的인 먼 거리로 인하여 對面學習의 기회를 자주 누리지 못한 學習內容을 補充하여 주는 最善의 길이기 때문이다.

세째, 自學自習이 가능한 敎材開發을 더욱 강조하여야 하겠고 이에 대한 評價를 學期制보다 月別로 실시할 수 있는 方案의 모색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有職 學校外 學生의 경우 계속 點檢하는 學習習慣의 形成이 一定期間 요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째, 放送에 따르는 獨立된 機構가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製作과 放送(映)이 敎育擔當機關에서 수행되어야 하겠다. 나아가서는 감청자를 선정하여 放送內容의 수정·보완은 물론 시급히 요구되는 難視聽地域의 解消에도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

다섯째, 放送通信高等學校와의 연계성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放送을 통한 學習은 쉽게 습관화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계속학습의 조기습관화는 앞으로의 自學自習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敎授·學習의 方法面에서 매우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主要外國의 경우처럼 放送通信大學에 學位 및 非學位課程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이 요청되며 나아가서는 人文·社會系列에서 獨自의 新設學科의 開發이 있어야 하겠다.

일곱째, 敎育의 主要部分으로서 評價는 正規大學과 同一水準의 것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되

겠고, 특히 졸업시험은 對面評價가 어렵지만 계속 연구하여 수행하여야만 앞으로 社會的 認定을 받는 데 有益할 것이다. 왜냐하면 學校學生과 學校外 學生과의 社會的 差別待遇를 制度的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就業機會에서도 同等한 評價에 의하였음을 社會的으로 弘報하여야 하겠다.

## 3. 開放大學

우리나라에 있어 開放大學은 무엇인가 再定立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대학의 前提條件에서부터, 自學自習이 가능한 資料開發과 그리고 現場學習의 比重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入學의 條件을 완전히 開放하든지 아니면 實業高等學校 졸업자와 專門大學 출신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經驗을 지닌 자에게 개방을 하여야 되겠다.

둘째, 自學自習이 가능한 敎授·學習의 資料가 개발되어 夜間制, 週末 그리고 季節制도 병행 운영되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學點單位의 學年制로서는 產業體 근무자의 학습에는 어려운 限界線에 이르게 될 것이다.

셋째, 開放學習의 實際에서 放送通信大學의 일부 敎科目을 이수하고 아울러 現場學習이 더욱 강화되지 않고서는 開放大學을 졸업한 이후 學習한 結果의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綜 合

우리나라 특유의 社會的 現象은 學歷에스켈레이터 類型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開放大學의 定時制 非學位課程의 運營이 매우 어려움은 一般化된 사실이다.

그러나 人文·社會系列의 開放學習기관으로서 韓國放送通信大學과 實業·工業系列의 開放大學과 一般大學과의 橫的 紐帶를 강화하여야 되겠다.

그 이유는 앞으로 一般大學에서는 學校外 學生을 非學位課程 혹은 學位課程에 수용하여 指導할 訓練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다.

韓國放送通信大學의 경우 選定委任한 協力學校에 出席授業을 의뢰하고 있는 이상 수업의 質的 管理는 委任하되 評價의 總括的 管理에는 客觀性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協力學校로서 有關大學과 韓國放送通信大學처럼 開放大學은 一般大學 못지 않게 産業體와의 關係를 깊게 맺어 現場學習 및 自律의 인 自學自習의 길을 찾아 제공함으로써 有職勤勞者가 定時制學生으로 앞으로 더 많이 參與하게 될 것이다.

또한 韓國放送通信大學의 一部講座를 開放大學에서 履修하게 함으로써 두 大學間의 連繫性이 強化되며 開放의 實際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정기간 社會的 活動을 한 者에게 特別전형의 形式으로 開放大學에서 선발·입학시킴으로써 開放된 學習機會는 매우 넓게 되었다.

다만 教授人力과 學習空間의 制限性은 自學自習을 위한 教材開發과 現場研修와 그리고 放送講義聽取로 인하여 상당부분이 解決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準形式教育은 外形上의 學生數보다 內實을 다질 때가 왔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大學教育과 社會教育과의 關聯性 探索은 韓國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에 한정하여 찾아볼 때에

첫째, 대학에서의 修學者를 위 두 대학에서 學

士編入 또는 3학년 編入生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둘째, 위 두 대학 卒業生들의 일부는 大學院으로 진학하며,

셋째, 韓國放送通信大學의 出席授業은 대학의 방학기간중 協力받고 있다.

네째, 開放學習體制에 참여하고 있는 學生의 대부분은 대학의 學士學位와 동등한 社會的 選拔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섯째, 주·야간 수업부담 및 과제를 침삭지도 등의 교수부담은 大學의 教授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들 모두는 大學教育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의 5가지 관련성 이외에 學生들의 학위 취득 열망, 이론적인 학습의욕, 學校學生과 學校外 學生의 社會적 差異 있는 구분의 불식, 그리고 開放學習體制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요원의 확보 등이 부각된다.

특히 상위 수준의 學問 연구를 대학에서 맡고 있으며, 동일 수준의 多學問間修學을 현장경험과 결부하여 開放學習機關에서 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